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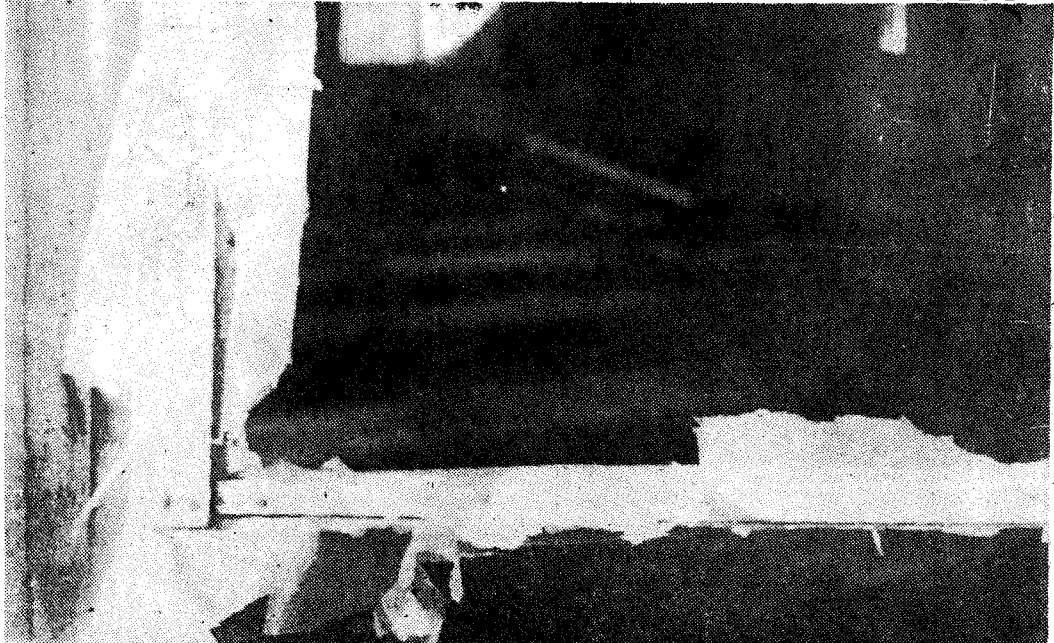
# 부러일러

## 불황의 전조

미국이 지난 6월 27일 곡류금수조치를 내린 것을 전후하여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

리나라 양계업의 전도가 암담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었다. 1972년 8.3조치 이후 사료가격은 10.9%가 인상되었으며 다시 지난 2월에는 26.9%가 오르면서 생산비는 더욱 상승되고 있었다.

이때만 해도 생산물의 판매에는 별신경을 쓰지



### <명빈 기사>

않고 그저 사료가격은 오르더라도 공급이나 제 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양계인들의 단순한 바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7월에는 다시 13.3% 인상되면서 공급량과 질이 약간은 나아지려는가 싶었으나 이러한 현상은 며칠 가지 않아서 다시 사료는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질은 더욱 떨어져서 양계인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상태였지만 그런대로 부

로일러 가격은 6월부터 9월 13일 추석까지 300 원선을 유지하고 있어 사료에 대한 불만은 있고 부로일러 업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추석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부로 일러 가격은 9월하순 180원까지 폭락하였다. 10월에 들어와서도 부러일러 가격은 230원대를 맴돌고 있어 kg당 100원 가까이 적자를 보는 극심한 불황속을 허덕이게 된 것이다. 더구나 금년은 뉴캐슬의 피해가 막심하여 전국적으로

# 危機의 現場

유 상 철  
 <양계협회 편집부장>

부로일러에 대한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인천의 부로일러 단지에 있는 모씨는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다. 다른 방도를 찾아 살 길을 마련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말은 지금 부로일러를 하고 있는 모든 양계인의 공통된 심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kg당 생산비 300원대

육성기간 60일  
 출하체중 1.7kg  
 사료효율 2.4 : 1  
 육성율 96%  
 생산비 200원

이 숫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로일러를 기르는 사람들의 목표였다.

육성기간이 하루만 늦어도 사료효율이 0.1만 낮아져도 육성율이 1%만 떨어져도 어떻게 하면 개선할 방안이 없을까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이때만해도 각 사료회사나 부화장의 애프터서비스 요원들도 이러한 점을 개선시켜 주고 아울러 자기의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였든가 앞에 제시한 숫자들은 너리에서 살아져가게 된 것이다. 도대체 사료의 질은 논의할 필요도 없었고 논의해 보았자 개선될 여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료공장에서도 적자를 계속 감수할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과거에 있었던 의상판매라는 말은 잊은지가 벌써 오래였다. 양계인들은 배합사료를 사다가 여기에 다시 단백질과 에너지를 높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섞어 보았지만 별달리 큰 효과를 기대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생산비가 얼마나 드는지 따져보기조차 귀찮은 일이되고 말았지만 억지로 계산 해본다 하면 놀라운 숫자가 나오게 된다. 다 알고 있는 일이라 별로 놀랄 것도 없다.

육성기간.....70일(10일 연장)  
 출하체중.....1.5kg(0.2kg 저조)  
 사료효율.....3 : 1(0.6 저하)  
 육성율.....90%(5% 저하, 뉴캐슬의 피해가 없을 경우)

이러한 숫자를 근거로 대강 생산비를 계산해 보면

병아리대 70원  
 사료대 315원(부로일러 사료 70원×4.5kg=315원)  
 기타 60원(건물, 기구상각비, 연료비, 인건비, 약품비, 수리유지비 등)  
 445원

kg 당 생산비 445÷1.5=296.70원 육성율 85%에 대한 생산비 329.70원

생산비가 이렇게 나오는 바에야 추석이후에는 kg 당 100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병아리 1,000수를 사다가 기른 양계인은 에누리 없이 150,000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2000수면 300,000원 10,000수면 150만원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계속 양계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산자나 소비자나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육계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대로 kg 당 350원을 호가하고 있다. 농장도 가격과 소매가격의 이 엄청난 차이(kg 당 100원)

는 중간 상인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기구의 불합리는 이미 옛날 부터 거론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유통이 불합리하다고 느껴본 적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중간상인의 횡포는 단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양계인이 정보에 어둡고 시장변동 상황을 모르는 것을 기회로 영등포지역에서는 270원에 거래 되고 있는데 청량리 지역은 210원에 팔리고 있었다.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로 220원~230원에 거래 되고 있었던 것이다. 중간상인들은 여기에서도 역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유통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불합리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한 양계인의 경우를 보자. 영등포 오류동에서 부로일러를 8년간 해온 최병관씨는 자기의 생산물을 직매하기로 결심하고 지난 10월 14일 조선일보에 조그만 광고를 냈다. 당시 농장도가격을 kg 당 200원도 채 못되었을 때이다. 최병관씨는 다섯마리 이상 구입할 때는 배달해 줄 것을 조건으로 kg 당 250원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광고 효과는 예상 이외로 커서 일반 소비자들의 배달 주문이 계속 왔고, 새로운 거래를 요구하는 치킨센터와 수퍼마켓이 생겨나고 가격은 280원까지 상승하였다고 한다. 시중에서는 중간상인과 생산자간의 가격이 아직도 210원선을 유지하고 있을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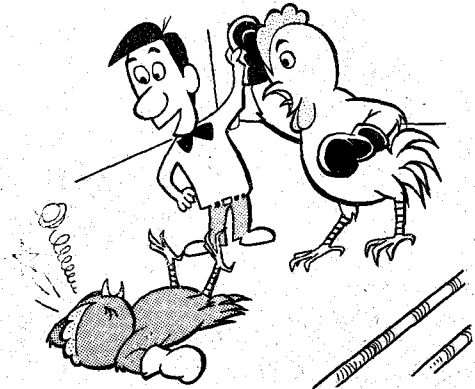
이것은 어느 한개인의 조그마한 노력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크다, 만일 이러한 일을 여럿이 모여서 일시에 실시하였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고 굉장하였을 것이다.

**부로일러를 KO시킨 뉴캐슬!**

제대로 길러도 손해를 보는 판인데 금년에는 뉴캐슬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다. 원래 뉴캐슬은 법정 전염병으로서 뉴캐슬의 발병 보고가 있으면 관계관이 현지에 파견되어 병계를 매몰하거나 소각시킬 권리가 있으며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인천지방의 부로일러 양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뉴캐슬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아무리 예방접종을 해보았자 소용없이 한번 퍼져서 양계장에 상주하고 있는 뉴캐슬 바이러스는 계속 기승을 부려 세번, 네번, 다섯번, 휩쓸고 나서 이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어느 양계장이 뉴캐슬을 몰아낼 실산으로 자기 양계장을 일제히 비우고 소독을 하고 해보았지만 바로 옆집 양계장은 여전히 뉴캐슬이 걸린 닭을 키우고 있으니 소용없는 것이다.



뉴캐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데도 이렇게 피해가 큰 이유에 대해서 안양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과장은 「정상적인 백신이라도 뉴캐슬 발생은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예방접종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예방접종은 제대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뉴캐슬이 발생하였고 지금 뉴캐슬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단순한 백신접종을 한다 해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뉴캐슬을 몰아내는 길은 단 한가지 지역별로 공동방역체제를 취하는 것이다. 공동방역을 취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별로 협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일정한 지역별로 입추를 동시에 중단하고 종합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을 완전히 실시한 후 계사를 2주간 비워놨다가 40~50일령된 백신미접종(未接種)병아리를 2주간 길러보아서 뉴캐슬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양계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뉴캐

슬미발생지역에서 공동 육추를 하여 백신을 접종하고 혈액검사를 하여 역가가 인정되는 것만 키우는 방법도 쓰일 수가 있다.]

모든 질병의 예방은 소독에 근원을 두고 있다. 양계장이 보통 소독을 한다 하면 대강대강 계사를 쓸고 나서 구석과 바다 일부 소독약을 대강대강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독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계사를 완전히 비우고, 먼지를 깨끗히 털어낸 다음, 물로 세척을 해서 말리고 모든 기구는 역시 물로 깨끗히 세척해서 태양광선에 말리고... (사실 여기까지만 철저히 해도 소독약을 영성히 뿌리는 것보다 낫다), 소독약 메이커의 설명대로 실시하는 소독이라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주의: 시중 소독약의 역가가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지시된 용량보다 많이 써야 하는 것도 있다)

### C 사료의 애프터 서비스

C 사료는 병아리와 사료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모 부로일러 단지에 병아리와 사료공급을 일제 중단하고 그대신 소독약 50만원어치를 단지내에 투입시킨 일이 있다고 한다. 어찌피 길러도 뉴켓슬이 걸리거나 혹시 안걸린다 하더라도 kg당 100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차에 별탈 없이 소독약의 투입은 일단 성공한 셈이다. C 사료는 앞을 내다보는 장사 수단이었지만 부로일러 업자들에게는 이렇게 고마운 일이 세상에 또 없는 것이다. 모월모시 단지 전체가 쓸고 닦고 소독을 실시하고, 또 쓸고 닦고 소독을 실시하여 이제는 뉴켓슬을 정말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방역이 실시된 셈이다. 다른데는 몰라도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소독→백신접종→혈청검사→재접종→육추의 단계를 밟아 제대로 길러 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 사료가 좋습니다」 「우리 병아리가 좋습니다」 보다 행동으로 양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 앞으로 이단지는 양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하는 한 C 사료와 고객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사료가격은 또 오른다

양계인이 적자를 보진 망하건 간에 사료값은 오르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지난 9월 20일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용 옥수수 구매 확정량은 425,560%으로서 사용시기는 1973. 9월말부터 1974년 6월말까지로 가격을 보면 톤당 133\$에서 141\$, 152\$, 164\$로 여러가지가 있다. 지금 배합사료가격이 옥수수 톤당 98\$ 당시의 가격에 기준한 것이라니 옥수수 한가지만 보더라도 최소 15%에서 32%까지의 인상 요인이 있게 된다. 여기에 대두 박가격도 kg당 117원에서 123원으로 올랐고, 다른 곡류도 평균 26원에서 48원으로 오른 데다가 포장비, 제조비, 일반관리비가 오르기 있기 때문에 사료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료공장측의 얘기로는 오히려 사료가격 인상을 지연시키므로써 사료의 질이 떨어져 사료효율이 감퇴되고, 생산제한으로 인한 풀귀현상, 가축의 생산능력 감퇴, 축산업의 위축을 물고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료공장측이 32%정도의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농수산부, 경제기획원은 25%선에서 인상을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17%선에서 인상폭을 누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아뵤튼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즈음에는 사료가격이 인상된 후라는 것을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20%만 오르더라도 생산비는 kg당 360~38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다행히 10월 하순부터 부로일러 가격이 상승되기 시작하여 10월말 현재 300원까지 올라 갔지만 사료가격이 인상되면 사료가격 오르기전의 240원과 같은 것으로서 kg당 60원~80원의 적자를 계속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kg당 400원까지 오르지 않는 한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 어느때 보다도 부로일러의 危機라고 할 수 있다. 이번의 위기는 과거와 달리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回生하기가 어렵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도 어느정도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것 보다는 유통구조의 과감한 혁신, 소비증대방안의 모색, 가격의 보장을 정책적으로 해주어야 할때인 것 같다.